

데스크시각

막말의 상대성



홍행기 편집부국장·정치부장

필요하다. 상대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접촉의 부작용

골맨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인터넷과 SNS에서는 ‘실시간 피드백’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 등 감지해야 할 신호를 즉각 받지 못하면 뇌 속의 충동 억제 회로는 당황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탈(脫) 억제 충동’으로 나타난다. ‘탈 억제 충동’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면 ‘탈 억제 충동’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프라인의 대면 접촉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 및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 등을 발미 삼아 불길한 그림자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막말이 범람하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인터넷과 SNS가 지구촌의 기본 소통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는 지금, ‘탈 억제 충동’이

라는 부작용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막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초기 일베를 비롯한 극우 성향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막말이 요즘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오피니언 리더들마저도 인터넷 댓글과 SNS를 통해 막말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전래 속담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는 가장 최신 이론인 양자역학은 입자성과 확률성 그리고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계성은 ‘사물과 사건은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난다. 한 체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체계와 관계하여 일어난다’로 설명된다. ‘세상 어느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실제로는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온 기본 원리였던 셈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숨겨진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권모술수 차원의 막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서로 이해시키려는 정성,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윤희환 의사소통을 이용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호모사피엔스)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다른 생명체를 누르고 최상위 포식자로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윤희환 의사소통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윤희환 의사소통’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미래를 또 다른 발전으로 이끌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지 지켜볼 일이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수영대회 기간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광주 지역의 자동차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주변 등 도심 곳곳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혼잡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사고 기록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광주 지역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54대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38대였다. 광주는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사고율도 전국 평균(15명)의 두 배가 넘는 32명에 달해 전국 1위였다.

기초자치단체별 인명 피해는 광주 동구(52명)가 강진군(66명)에 이어 두 번째였고, 읍면동에서는 서구 치평동이 3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주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6년 58만 8355건, 2017년 52만 9133건, 2018년 57만 1798건에 달하고 있다. 매년 50만 건 이상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무질서한 주정차 문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때문에 지난 4월부터는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주민 신고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도 공영 주차장 확대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광주 문학관’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1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문학관의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최근 통과된 것이다.

40억 원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 시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은 지난 4월에도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랐으나 ‘타 광역시군 문학관과 비교해 면적(규모)이 넓고 재원 조달 방안이 명쾌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14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시 자료 및 유물 조사를 이어 가고, 광주문학관 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광주문학관은

총사업비 171억 원으로 북구 시하마을 일원(북구 각화대로 91)에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는 한국 문학의 중심지나 다름없다. 문학사를 빛낸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다른 데는 그 흔하다 흔한 문학관이 없는 도시였다. 이제 ‘문학관 하나 없는 도시’라는 부끄러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문학관의 기능이 전시, 교육, 자료 수집, 연구 중 어느 것을 넣고 뺀지 결정해야 한다.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지어 놓고 운영 프로그램은 엉망인 곳이 많다.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라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문학관에 채워 넣을 자료 수집도 서둘러야겠다. 시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은펜칼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회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당면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과 통찰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세간에는 인문학 고전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고적인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전 읽기를 강조해도 정작 읽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뿜는 분위기는 항상 고리타분하고 일상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학자들의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로 엮어 낸 작품이 인문학이다.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학문이다.

이智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이 책은 큰 틀에서 인문학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대의 유망한 학자들부터 현세의 천재들까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가 드물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처칠, 뉴턴, 에디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천재라는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원래 전교 꼴찌를 도맡아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던 삶을 살았지만 인문학 고전을 접한 후 천재성이 발휘되어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리더가 되었다면 믿겠는가?

그렇다면 인문학 고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창의적인 인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독서는 화자와 독자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독자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한층 나이가 더 심화된 사고를 하게 된다. 인문학 고전 읽기도 메커니즘은 같다. 다만 내용의 차이이다. 인문학 고전을 읽음으로써 작

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인문학 고전 읽기의 목표이다. 물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범인이 천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렇기에 반복해서 읽고 써가며 읽고 구절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책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문리가 터져 두뇌가 열리게 되는 문심해두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 그에 따라 행동도 바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다. 문심해두의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책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매 순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가 겪는 것이다. 누가 참고 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면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승자이니 말이다.



심명섭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정규 교육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을 비롯한 평생 교육 기관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취미 활동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역력하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사회화하는 과정으로서 기술 습득이라는 능력 개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대사

기고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지역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는 ‘부산 국제영화제’,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함평 나비축제’, ‘여수 엑스포’ 등 다양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랜드마크가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의미나 추상적 의미를 갖는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광주 타워”를 세워 광주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 볼까? 이러한 것 역시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당장 가능한 광주의 랜드마크나 상징물을 만들 수는 없는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광주 비엔날레’ 등은 광주를 알리는 충분한 광주의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대표 브랜드나 상징물을 통해 외부인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가? 먼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자. 외부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고자 광주를 찾았다면 어디를 가보라고 추천하겠는가? 망월동 5·18 묘지? 아니면 구 도청의 5·18광장 주변? 상무지구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치평동에 있는 5·18 자유공원? 이렇게 흩어져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들을 외부인에게 네 군데 모두 가보라고 해야 하는가? 또한 전 세계 문화 생산

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광주 비엔날레’는 2020년 제13회 때에 전 세계인이 찾는 광주의 문화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금년 9월 7일 개최를 앞둔 제8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세계 종합 디자인 축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가?

지금이라도 광주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먼저 광주시 홈페이지에 ‘5·18 광주 민주버스 투어’를 운영하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아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네 군데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면서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시민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두 행사의 차별화된 콘텐츠, 접근성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두 비엔날레가 지금 이대로는 광주시민의 호응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잃고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전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양성관 동국대학교 교수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나 건물, 주위 경관 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건축물을 말하며, 물리적·가시적 특징의 시설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 공간 등도 포함된다. 현대에 와서는 특정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서울타워, 영국 런던의 타워브리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중국의 천안문 광장 등이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그러면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아니 광주에 랜드마크는 있는가? 학생들에게 광주의 랜드마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광주의 랜드마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등산’, ‘광주 비엔날레’ 등으로 압축되었다. 대한민국 유명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SNS를 활용하는 정치를 가리켜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의 앞 글자를 따 ‘카페트 정치’라고 한다. 카페트 정치를 가장 잘하는 정치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거의 매일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올려 지구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가 일본에서 트위터로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북한이 ‘흥미로운 제안’

카페트 정치

이라며 리트윗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국 현직 대통령

의 첫 방북 성과를 낳은 판문점 회동에 대해 ‘최초의 트위터 정상회담으로 전례 없는 외교’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인종 차별 논란도 트위터가 발단이 됐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자신이 비판적인 민주당 유색인종 출신 여성 의원들에게 ‘원래 나라고 돌아가라’고 트위터에 올렸다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일

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장가’를 ‘폐북’에 올리면서 의미있는 가사라고 소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다음 날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기 전에 폐북에 올려 자료 유출 논란을 키웠다.

유력 정치인이 카페트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뉴스를 판단하는 기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다. 트럼

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매체 대신 트위터에 입장을 밝혀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정치인에게 신중하지 못한 카페트 정치는 득이 될 수도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 막말을 차단하기 위해 삼사일언(三思一言)이란 말을 꺼냈지만 본인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해 논란이 됐다. 요즘엔 ‘삼고일압’(三考一押)이란 신조어도 생겼다. 세 번 생각하고 나서 자판을 한 번 눌러라는 뜻이다. 카페트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